

온라인 서명운동

민주당 개혁을 바라는
2,402명이
힘을 모았습니다!



당원이 주인인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에
적극적 인력과
예산 지원하는 구조!

미래비전 제시!
당당한 수권정당으로!

바람과 해를 담은 정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이원영



**신뢰 회복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개혁 제안**



더불어민주당 정당개혁을 위한 온라인 서명 운동

<개 요>

1. 진행기간 : 2022.08.17~09.02(16일간)
2. 서명인원 : 2,402명
3. 누적방문자수 : 10,082명

<경 과>

1. 2022년 8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정당개혁을 위한 온라인 서명운동 진행
2. 2022년 8월 22일 당대표 및 최고위원후보자들에게 공개 질의
3. 이재명후보, 박찬대후보, 정청래후보, 송갑석후보, 서영교 후보, 장경태후보 서명 내용에 동의 답변 회신
4. 2022년 9월 19일 당대표 및 최고위원들에게 당원 및 지지자들의 의견 전달

1. 당원이 주인되는 더불어민주당!

대의원제, 중앙위원제 등을 개혁하여
당원에 의한 직접민주주의 실현

온라인 플랫폼 정당 개편

- 지역별 페이지 구축
- 당원-지역위원회-시도당-중앙당 간 유기적 소통

일상적 민주주의 구조 확립

- 전당원투표 등 당원 의사결정시스템 구축과
당원 커뮤니티 지원으로 당원책임과 권한 강화
- 시도당과 지역위원회별 온라인 투표 시스템 도입

지역위원회별 정치아카데미 제도 도입
등으로 당원으로부터 출발하는
인재 양성 구조 구축

2. 원외지역위원회에 적극적인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는 구조를 만듭시다!

**중앙당 인력과 예산 상당부분을
원외지역위에 재배치·재배분 구조 구축**

**사무처장을 비롯한 시도당 당직자 선발을
지역위와 협의하고, 시도당에 권한 위임**

3. 미래비전을 제시해 당당한 수권정당을 만듭시다!

**탄소중립이 곧 경제!
기후위기,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미래비전 제시!**

탄소중립위원회 상설화, 전국화!

**부위원장단 구성 시
지역별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 포함**



**더불어민주당의 개혁을
바라는 목소리**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신 분들의 다양한 의견입니다



성○○님
(권리당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당원들이 찾아서 팩트체크하는 게 아닌 당이 나서서 팩트체크를 빠르게 해줄 수 있는 구체적인 루트가 필요합니다. 지지자들이 찾아내서 알리는 것과 당에서 못박아놓는 것은 무게가 다릅니다. 민주당은 가짜뉴스의 크기와 상관없이 하나하나 반박해야만 합니다. 그 속도가 너무 느린 거 같아 당원으로서 답답하고 화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스피커의 말에 의존하는 당원들도 생겨납니다. 당원들이 당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밀어주기 위해선 당이 신뢰를 줘야 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단순히 소통의 창구가 아닌 알림의 창구로도 써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플랫폼은 실명제사용과 욕설, 멸칭 사용 금지를 지켜내는 공간이었으면 합니다. 기존 민주당 어플, 국회의원분들은 당원게시판 들어가보셨습니까? 사람이 조금만 많아져도 어플은 먹통입니다. 최신형 핸드폰에서도 그런 오류가 납니다. 플랫폼의 서버 상태를 개선시켜서 당원들의 놀이터이자 배움터가 되길 바랍니다.



조○○님
(권리당원)



지금의 민주당은 당원이 없는 국회의원이나 당무자들만의 정당입니다. 당원의 의견을 무시하는 정당은 곧 사라질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정의당의 사례를 가볍게 보는 시행착오를 더이상 하지 않길 바랍니다.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신 분들의 다양한 의견입니다



윤○○님
(권리당원)



동의합니다. 어려운 결정을 할 때는 당원들의 집단 지성을 믿고, 전당원 투표로 결정합니다. 민주당이 몇몇 국회의원 개인 것이 아니잖아요? 좀 전당원 투표로 결정합니다. 쫘.....



김○○님
(권리당원)



참여한 현안이 있을 때는 전당원 투표로 결정하는 것이 정당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님
(권리당원)



열린공천과 직접민주주의를 가능케하는 온라인 플랫폼 정당에 찬성합니다. 이번에 당원이 중심이 되는 당개혁안을 만들고 앞으로 중요한 당헌당규의 개정시 전 당원 투표로 할 것을 명시해 함부로 몇몇 정치인들이 당헌 당규를 바꾸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최○○님
(권리당원)



온라인으로 당원들의 의견이 더 반영 될 수 있도록 "더민주"라는 당원전용앱을 개발해서 배포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바닥의 민심까지 충분히 반영되고 모든 당원의 난상토론이 이루어 질 수 있으면 합니다.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신 분들의 다양한 의견입니다



전○○님
(권리당원)



권리당원들과 지역위원회 간의 소통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역위 소식을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우리 지역에 다음 총선에 뽑을 만한 사람이 누구인지 도통 알수가 없어 답답합니다.



정○○님
(권리당원)



모든 의사결정 권리당원 100% 투표로 결정 / 경선권리당원 100%투표로 결정 / 당원 직접투표로 결정 / 열린공천(권리당원100%로 공천)시행



이○○님
(권리당원)



당내 의견이 분분할때 전당원투표시스템 도입해주세요. 디지털시대에 카톡 한번이면 금새 의견취합이 가능할텐데 왜 당원의사는 무시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이○○님
(권리당원)



대의원제 폐지. 국회의원과 권리당원 그리고 당원들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매체 설립 그리고 민주당안에 많은 TF팀들이 있는데 결론을 본 적이 없다. 국회의원들이 시작한 일을 성과를 좀 보고 받고싶다. 환경관련된 페스티벌을 여는 것도 좋은 것 같다. 외국은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페스티벌 개념의 환경운동도 많다. 그리고 모두가 대면할 수 없으니 온라인 교육도 좋다.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신 분들의 다양한 의견입니다



김○○님
(권리당원)

“당원들의 의견을 전달 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세요.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당원들이 있어야 민주당도 있는 거 아닌가요?”



김○○님
(권리당원)

“당원의 의견좀 듣고 반영합시다! 당원은 당비만 내고 투표할 때만 필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김○○님
(권리당원)

“더 이상 과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민주당이 아닌 당원과 함께하는 살아있는 정당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이재명과 함께 개혁해나가야 합니다.”



황○○님
(권리당원)

“감히 국회의원이 당원을 무시하는 발언을 할 수 없는 당을 만들어 주세요. 필요할 때만 당원동지를 부르는 국회의원은 필요없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에 일부 지역에서 권리당원의 출입을 막는 일이 생겼습니다. 사전 고지된 것도 아니고 이 역시 당원을 무시하는 행태라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시스템은 충분히 구현되어 있으니 당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운영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이 패셔너블한 이미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태한 촌스러운 이미지가 강해졌습니다. 국회의원이 쇠신해야 합니다.”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신 분들의 다양한 의견입니다



신○○님
(권리당원)

“다 필요없고 제발 기득권을 내려 놓고 당원 말을
경청해주시고 국민을 대신하여 하는 국회의원만큼 제발
국민을 위해 일해주세요 국민의 힘은 이미 글러먹었습니다..
민주당만큼은 제발 정신 좀 차리시길 바랍니다. 정신차리지
어렵다면 창당해서 나가시던지 국점으로 가세요.”



허○○님
(권리당원)

“당헌당규 및 공천 그리고 큰 과제를 전당원투표로 결정으로
당원이 주인이 되어 지지하는 맛이 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님
(권리당원)

“모든당원 1인 1표 중앙위 폐지 공천 시 당원투표 당원참정권
확대 당사 완전오픈”



허○○님
(권리당원)

“비민주적인 대의원제도 폐지되어야 합니다
중앙위원회 권한 축소 내부총질의원 중징계 또는 의원직 박탈”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신 분들의 다양한 의견입니다



김○○님
(권리당원)



주제(예: 교육, 복지 등)별로,,,당원들이 1개이상 의무가입...
당원과 소통하는 온오프라인 채널가동



조○○님
(권리당원)



당내 의견이 분분하면 전당원 투표를 상설화,
열린민주당이 시도했던 열린공천 시스템화



박○○님
(권리당원)



대통령과 정부의 무능, 몰상식, 탐욕으로 인해 절망에 빠진
국민들에게 유능한 이재명을 중심으로 민주당이 희망의
등불이 되었으면 합니다.



안○○님
(권리당원)



중앙당에서 의무 지원하여 지구당마다 반드시 독자 앱을
만들어 당원들의 의견을 자치분권시대에 걸맞게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수렴하고 공유하는 방안을 당헌에 규정해야합니다.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신 분들의 다양한 의견입니다



신○○님
(권리당원)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권한을 비슷하게 조정해주세요!
민주당원의 의견을 소중히 듣는 민주당과 당원의 대표
국회의원이 되주세요!
당원 위에 군림하는 국회의원이 되라고 뽑아준 우리의
대표가 아님을 명심해주세요!



정○○님
(권리당원)



동의합니다. 끊임없는 성찰과 개혁을 향한 시도만이 강한 정당,
이기는 정당, 사람을 위한 정당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역위원회 활성화와 에너지 전환을 위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배○○님
(권리당원)



적극 동의합니다. 지금 민주당에는 더불어도, 민주도, 당원도
없습니다 매번 온라인 서명, 청원, 집회, 문자 등으로 전달하는
당원들의 목소리는 '강성'이라는 한마디로 통치며 묵살하는
현 민주당 인사들과 지도부를 규탄하며 당원중심의
민주당으로의 체제 변화에 적극 동의합니다



박○○님
(권리당원)



이재명의원님께서 대선후보시절 제안하신 탄소세, 이번
미국에서 제정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있는 메탄세 등도
도입하면 좋겠습니다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신 분들의 다양한 의견입니다



박○○님
(권리당원)



권리당원의 수가 백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국회의원 임기는 4년이지만 권리당원은 탈당 때까지 계속입니다. 누가 당의 진짜 주인인가요. 백만대군의 뜻을 무시하고 국회의원들끼리 짬짜미로 당 운영하는 거 절대 반대입니다. 우선 당헌 제80조부터 당원들의 의견을 묻기 바랍니다. 국집당원인 안철수가 만든 걸 왜 폐기 안합니까.



최○○님
(권리당원)



당원이 주인인 더불어민주당을 위해 대의원, 중앙위원회 개혁과 중요 안건 및 현안과제로 정기적인 "당원총회 개최"하고 당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님
(권리당원)



모든 지역을 포함하여 상시 공론화 시스템 구축으로 담론이 형성되고, 당원의 의사가 반영되고, 당원과 정당이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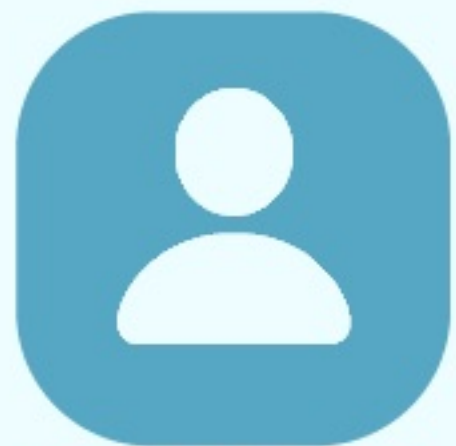
박○○님
(권리당원)



국회의원의 칭찬하는 게시판과 좋아요 등이 정리 될 수 있는 게시판 같은 것이 신설되었으면 좋겠어요. 칭찬의 글과 내용으로 다음 공천 등에 반영될 수 있게요. 일 잘한 사람이 칭찬받고 공천받아서 다음에 또 국회의원할 수 있고.. 당원 지지자의 눈치를 볼 것 같습니다. 지금..당원게시판 있어도 그걸 국회의원들이 보나요~?! 안봅니다. 당원 청원 있어도 5만 넘었어도 안들어주잖아요. 많이 속상합니다주요는. 당원 지지자의 눈치를 보는 국회의원들과 법발의안이 같이 되었으면 합니다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신 분들의 다양한 의견입니다



방○○님
(권리당원)



당의 주인은 전체당원들입니다. 민주당의 의사결정권을 주인인 당원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170석이 넘는 의석수로도 제대로 된 개혁과 민생을 외면하는 기득권 정당으로 추락한 민주당을 보며 과감한 혁신과 자기 반성 없이는 민주주의의 완성은 허상에 불과하단 위기감 통절하였습니다.
반드시 혁신해야 하고 국민께 사랑받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민주당의 시대적 소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한○○님
(권리당원)



이벤트성 외부인 데려와서 본인앞에 세우고 꼭두각시처럼 휘두르는 끈대의원들 사라지고, 바닥부터 노력하며 당활동 하고 있는 지역당원들 키워서 진정한 민주당의원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박○○님
(권리당원)



더불어민주당 개혁을 강력히 요구하며 개혁안에 동의합니다
민주당은 당원이 주인되는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십시오
지지자없이 당원없이 민주당 존속할 수 없습니다. 역대 가장 어려운 시기입니다. 강력히 힘을 모아 공정 상식 정의 없는 윤정권과 맞서싸워야 합니다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신 분들의 다양한 의견입니다



정○○님
(권리당원)



당원 토론의 기회와. 의사결정 기회 등 제한되어 있던 민주주의를 오픈해서 진짜 민주주의 정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조○○님
(권리당원)



당헌에 대통령제, 4년연임만 한다는 조항 포함. 대의원제 폐지, 당원 권리 대폭 강화



김○○님
(권리당원)



당헌당규 개정 시 반드시 당원들의 투표를 통해서만 가능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당의 주인은 당원들입니다 민주당 국회의원은 당원들의 대리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왜 주인인 당원들의 의사결정은 묻지 않고 대리인들 마음대로 중요한 결정을 정합니까? 반드시 당헌당규 개정은 당원들의 의사결정에 따라 바꿀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서○○님
(권리당원)



당헌 당규 개정은 반드시 당원투표로 결정한다! 당무위, 윤리위, 비대위 이런 사람들이 멋대로 고칠 수 없게 한다!!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신 분들의 다양한 의견입니다



신○○님
(권리당원)



네 동의합니다. 당비 6개월 납입해야 투표 등 할 수 있던데 당비 3개월만 납입해도 당의 투표권 등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김○○님
(권리당원)



대의원제를 많이 손봐야 할 거 같습니다. 대의원 제도를 없애지는 못해도 권리당원들도 그에 못지 않게 동등한 투표권리를 주신다면 불만도 사라질 거고, 잘못된 관행도 없어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



최○○님
(권리당원)



당헌당규 개정애 전당원 투표를 실시하십시오



김○○님
(권리당원)



당헌당규 개정이나 민주당내에 중요한 사안을 다룰시 당원들의 투표로 결정했으면 합니다.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신 분들의 다양한 의견입니다



이○○님
(권리당원)



당원에 의한 민주당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당은 반드시 청년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들어 미래의 민주당을 위해 청년세대를 결집시켜야 합니다.



유○○님
(권리당원)



당원 게시판도 존재하고 청원도 열었지만 사실 효용성이 있는지 느껴지지 않습니다. 당원이 늘고 있고, 온오프 활동을 활발히 하면서 당원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가능한 정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양○○님
(권리당원)



현재 민주당 어플과 홈페이지가 매끄럽게 작동하지 않는점..도 같이 의논해주셨으면 좋겠고, 3월 이후 가입한 저같은 당원들이 지도부와 부드럽게 소통할수 있도록 접근이 쉬운 온라인 당원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셨으면합니다. 현재 당원교육은 어플 오류가 심해서.. 상기 안에서 대의원제와 중앙위원제 개편에 대해서는 상세히 들어보아야 겠지만 나머지는 동의합니다



구○○님
(권리당원)



지역균형발전, 전세사기 방지, 촉법소년 연령 하향조정등 대중들이 원하는 좋은 법안을 만들고 홍보하여 더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세요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신 분들의 다양한 의견입니다



신○○님
(권리당원)



당을 위해 헌신하고 싸우다 고소고발 당하거나 기소되신분
들 정치보복 당하신 분들은 무조건 당에서 책임지고
도와주시고 후에 비대위원 최고위원 공천 그 어떤 자리에도
선택권을 부여합시다. 민주당이 갈라지고 힘이 없는 이유는
싸우는 순간 버려지기 때문입니다.
장수들 장군들 더 키워주고 지원해줍시다



정○○님
(권리당원)



당원의 의사가 편리하게 적극 반영될수 있도록
온라인시스템의 적극 활용을 기대합니다 당원들과의
쌍방소통할수 있는 시스템구축을 요청드립니다



이○○님
(권리당원)



대의원제도가 필요하다면 그 등가성을 낮추고 권리당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 주세요. 당원 투표 확대



정○○님
(권리당원)



민주당의 큰 방향을 바꾸는 사안의 의사결정엔 반드시
당원의 의견을 묻도록 해야 합니다. 온라인 시스템은 이미
충분히 가능한데, 민주당만 외면하고 있습니다. 민주 없는
민주당, 오명을 씻을 때입니다.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신 분들의 다양한 의견입니다



홍○○님
(권리당원)



당은 당원이 근거입니다. 당정 책임자나 소수 임원의 의견만으로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근본적으로 배치됩니다. 민을 주인으로 하는 민주당의 운영이 근본적으로 당원을 무시하고 소외시키는 것은 민주당 발전에 퇴보하는 일입니다. 전체 당원의 의견이 중심되는 운영을 확고히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재벌 중심의 정책에 동조하는 듯한 바굴과 비겁 머뭇거림에 양극화를 근본적으로 태개하는 사회적 구조악의를 떨치는 정책과 과감한 개혁의 실천이 절대 필요합니다. 진보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불의한 정권에 대해서 용기와 결단력 있는 행동과 실천을 하는 개혁을 실천하는 역사를 바로 잡고 살릴 지도자가 절실합니다. 정치의 진정한 통합과 협치는 가난하고 힘없는 약자들을 보호하고 인갑답게 살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금 한국 정치는 국민의 고통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을 가중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의 한반도는 미중 패권 싸움과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일본의 평화조약약 파기



유○○님
(권리당원)



당원 직선제, 1인 1표 확립, 당원이 원하면 정책으로 대답하는 당원 청원 게시판 필요.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처럼요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신 분들의 다양한 의견입니다



손○○님
(권리당원)



온라인으로만 당원가입, 어르신들을 위한 시도당 당직자가 찾아가는 입당서비스, 종이당원 대납 당원 원천봉쇄



허○○님
(권리당원)



당원 및 지지자 전체가 아니라도 최소한 권리당원의 의견 제안 및 투표에 의해 결정된 사안들에 대한 정책 수립 전 결론 내리기 전 공청회 등 충분한 설명과 설득을 바랍니다.



이○○님
(권리당원)



당게시판이 좀 더 커뮤니티에 가까워졌으면 합니다. 품잡고 근엄한 느낌이 아니라 유머게시판도 당근마켓처럼 지역이야기도 할 수 있어서 들어가서 놀수 있는곳이 되었으면 합니다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신 분들의 다양한 의견입니다



김○○님
(권리당원)



플랫폼 정당이란 말만하지말고 제대로 된 당원게시판 만들어 제대로 운영하면 되는데 왜이리 이것저것 중구난방으로 운영하는지 모르겠네요. IT담당자들 소용하고 운영 제대로 해주세요.



황○○님
(권리당원)



당대표건 대의원이건 중앙위원이건 국회의원이건 모든당원의 투표권은 1인1표로 행사 되어야 한다, 그리고 민주당에 민주적 절차가 없다. 비대위 몇명이 맘대로 권한행사 하는 것 용납할 수 없다



박○○님
(권리당원)



가입도 온라인으로 하는 등 이미 온라인정당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 운영은 오프라인정당처럼 하고 있음. 중요한 이슈에 대해 쉽게 온라인투표를 할 수 있는데 활용이 전혀 안되고 있음. 이게 활성화된다면 굳이 대의원제도를 둘 필요가 있나 생각함. 설혹 대의원제도가 다른 이유로 인해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대의원의 표가 당원에 비해 과다하다고 생각함. 등가로 하는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함. 온라인에 아무리 권리당원이 의견을 제시해도 의원들이 확인하지를 않음. 그리고 해당행위를 하는 일부 당원들에 대해서 온라인상 활동을 금지하고 심한 경우 출당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봄.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신 분들의 다양한 의견입니다



문○○님
(권리당원)



시도당 사무실 직원들 교체하세요. 기존분들 전화불친절 등 자격이 없습니다. 이참에 새로 교체합시다



최○○님
(권리당원)



- 1.당원에게 공천권을 주자.
- 2.지속적당원가입홍보를하자.
- 3.지역별당원모임을자주가져결속력을키우자.
- 4.민주당사1층은 카페 지하에는
수시 공개 토론의 학습자틀 만들자.



황○○님
(권리당원)



민주델리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중동이라고 하는 곳에서 부풀려서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피셜로 요즘 돌아가는 이슈 위주로 오피셜로 말하는 게 영상을 주기적으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민생을 위해 좋은 법안들을 제출해도 당원들도 잘 모르는 케이스가 많아서 각 시도별마다 돌아가서 의원분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려주는 영상을 만들어 주셨음 좋겠어요 사실 직접 보고 직접 경험하는 현장 학습형이 제일 좋지만 중앙 정치 위주로 돌아가는 국회에서 지방 사람이 서울에 가는 걸 큰 맘 먹고 가야 하는 편이라 누구나 볼 수 있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매체들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신 분들의 다양한 의견입니다



전○○님
(권리당원)



특정세력이나 파벌주의자, 계파주의자가 아닌..
정치자영업자를 위한 당이 아닌... 직접민주주의!!! 당원중심
당으로 거듭나길 기원합니다!



최○○님
(권리당원)



저는 민주당생활 약45년차 당원입니다.요즘중앙당의
모습을 보면 정말로 한심합니다.
저의 제안 중앙상무위원회 권한축소및 전국 중앙위원회
폐지. 전국 대의원 폐지를 통하여 권리당원들의 투표로
중대개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손○○님
(권리당원)



대의원제를 폐지하고 일반권리당원 발언권 및 권한을
강화해주시시오 권리당원의 투표가치를 1인1표로
상향조정해주시시오
기득권 중앙위의 비민주적인 당내 독재정치를 막아주시시오



하○○님
(권리당원)



원내대표와 국회의장도 전당원 투표로 뽑을 수 있게
해주시고 모든 당론과 당헌당규 개정시
전당원 투표율 30% 충족 기준으로 결정하게 해주시시오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신 분들의 다양한 의견입니다



이○○님
(권리당원)

“미디어 관리와 홍보 20-30대 청년 전문가 도입
홈페이지내 해당행위 및 일방적 악플러 감시와 처벌강화
현직 국회의원 및 민주당 직접 관계자 미디어 교육과 검사
(조종동식 사고로 얘기하거나 불리하면 본인은 뉴스를 잘
보지 않는다는 정치인이 트렌드와 거리 먼 얘기를 하는
책임감 없고 발전의자가 없는 의원을 정리하기 위함)

”

이○○님
(권리당원)

“대의원제 폐지는 제 일순위. 현재 지역구 지역위원장 선출도,
모든 지역구 당원 투표로 선출 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

김○○님
(권리당원)

“대의원제 폐지 요청 드립니다. 서울 상경하는데 하루 종일
걸리는 시기도 아닌데 구시대적인 산물을
아직도 유지하는 건 아닌 듯 합니다. 전당원 투표가 가능한
시스템이 있잖아요.

”

황○○님
(대의원)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가짜뉴스에 대응하는 전문집단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팩트체크된 짧고 간결한 메시지로
확대 재생산되는 거짓선동으로부터
당내 구성원을 보호해야 합니다

”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신 분들의 다양한 의견입니다



홍○○님
(대의원)

“세대별 지역별 계층별 참여형 캠프(교육 프로그램) 정치사
노동 인권 등 민주시민으로써의 기본소양 대한민국 근현대사
임시정부 등 독립군 활동 등 기본소양 등 교육을 통한
군부독재 국심당 바로알기 운동 등 추진



오○○님
(대의원)

“시도당 별 권리당원 참여 하는 혁신위원회 신설,
청소년특별위원회신설, 원외지역위 강화 위한 지구당 부활,
청년 위원회 및 대학생 위원회 활성화 위한 예산지원



김○○님
(대의원)

“대의원제 폐지, 중앙위원제폐지, 공천제재정비, 민주당이
국민의 힘보다 보수당이라는 오명을 지워야 합니다.



김○○님
(대의원)

“제발 당원들 말에 귀기울여 의정활동 해주세요.
당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의원은 필요 없습니다.
의정활동을 포인트제로 하여 포인트가 낮은 의원에게
공천을 주지않은 등 상벌을 주어 제대로 활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신 분들의 다양한 의견입니다



김○○님
(대의원)



지구당부활 지역위원회 예산지원
더불어민생단조직>주민들의민원을청취하고해결



장○○님
(대의원)



개혁안에 적극 동의합니다!! 소외된 지역에 중앙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때입니다. 특히 험지
경북을 봐주십시오! 간절합니다!!



김○○님
(대의원)



원외지역위원회를 중앙당에서 지원해주셔야 합니다.
전국 정당을 만드는 기초적인 원외지역위원회를 버려두고는
만연 49프로 정당으로 남을 것입니다. 원외지역위원회의
과감한 지원을 건의합니다



홍○○님
(대의원)



현재 당헌을 비대위 몇명이 맘대로 개정하는 것은
민주절차가 아닙니다. 당원의 투표로 개정토록하여야
한다.그리고 모든 당원은 1인1표를 행사하도록 해야한다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신 분들의 다양한 의견입니다



최○○님
(대의원)



멀티방향소통에 전자투표가능한 시대, 대의원제 중앙위 폐지로 민주당이 직접민주주의 선도해야죠!



김○○님
(대의원)



이미 정책연구원도 있고 석박사들이 당에 많고 68년 정당사에 자료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plan-do-see의 물없이 고구마 먹는 것 같은 정책추진이 아닌 다양한 의견과 이미 정평된 이론들을 가지고 정책을 do-see-plan하는 게 실용성과 추진력 미래를 위해서도 모두 맞다고 봅니다 선조치 후평가 및 로드맵 구축시스템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님
(대의원)



전국대의원제 폐지 당원을 위한 세미나 및 청년아카데미 등 더 젊고 더 밝은 체질개선



주○○님
(대의원)



온라인전당원 참여 활성화로 직접 민주제 실현 및 당 혁신, 비민주적 해당행위자 징계 및 출당으로 당기강 확립, 강력한 개혁입법과 민생입법, 반헌법적 행위기관에 대한 탄핵으로 국가 기강확립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신 분들의 다양한 의견입니다



김○○님
(대의원)



이재명지지 80% 가까운 당원을 나치신봉자로 표현하는 것들이 민주당의원들 맞습니까?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주인인 당원이 싫은 의원들은 나가면됩니다. 당원중심의 민주당을 만들어 주세요.



이○○님
(대의원)



학력이나 계파 같은 것에 제약없이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공천시스템과 청년의 기초의원 출마에 대해 금전적 부담과 진입장벽을 낮춰줄 필요가 있고 이로 인해 청년들의 참여와 도전을 이끌어낼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양○○님
(원외지역위원장)



지구당 부활은 지역위원회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모든 것에 우선하여 지구당 부활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합니다



송○○님
(원외지역위원장)



지역위원회가 당무를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당원관리 및 당원교육을 지역위원회의 주요 업무로 규정하고 그 업무를 볼수 있도록 인적, 물적 토대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내 놓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일상적 정책생산과 정치활동 및 대중사업을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집행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신 분들의 다양한 의견입니다



김○○님
(원외지역위원장)

“지자체가 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처럼 지역당도 당원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숙의형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길 바랍니다. 또 협동 조합식으로 운영 하는 생활적 당조직체로의 발전을 기대합니다”



권○○님
(원외지역위원장)

“지구당부활과 권역별 비례제나 석패율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을 우리 민주당의 당론으로 확정하고 반드시 이뤄내야 망국적 지역주의를 혁파하고 정치불균형을 해소 할 수 있습니다.”



문○○님
(원외지역위원장)

“정당 현수막 게첩 법적으로 가능하게 해주십시오. 정책현수막이 하루도 안되어 철거되고 있습니다. 현수막은 효능감 뛰어난 정책 홍보 수단입니다.”



남○○님
(원외지역위원장)

“지역위 균형발전 추진 — 원외에 예산, 인력을 집중투자, 효율 극대화로 총선, 대선 승리 담보.”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신 분들의 다양한 의견입니다



방○○님
(당원)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추진 논의를 포함보다 적극적으로 미래비전 수립을 위한 기반 마련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님
(당원)



네 동의합니다 지역별 소규모 모임을 통한 활동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뭔가 하려해도 소통창구가 너무 없습니다..ㅠㅠ



곽○○님
(당원)



당원들과 민주당이 서로 소통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에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내고 접수가 되었는지 알기가 힘들었습니다.



정○○님
(지지자)



국회의장 최고위 중앙위 당대표 모두 권리당원 및 평당원 100%투표로 해주세요. 그리고 민주당원이나 국힘 후보 지지발언하는 당원 및 의원 퇴출 및 기소만으로 당원 정지한다는 당규 삭제해 주세요. 현 기소는 윤석열 입맛대로 기소하는 선택적 기소로 정적제거용입니다. 또한 민주당 당원을 향해 막말하는 의원들 강한 징계 요구하며 허위주장으로 당내 총질하는 의원 퇴출시켜주세요.

